

— Sun-45 —

Octreotide 피하주사 후 발생한 서맥 1예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 이상연*, 김현숙

Octreotide는 합성 somatostatin으로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혈액내 성장 호르몬과 somatostatin-c의 감소와 전이성 carcinoid 종양 환자의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또한 간경화 환자에서 식도 정맥류 출혈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상부 위장관 출혈 및 내시경적 역행성 쇄담관조영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즉, 급성 체장염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된다.

Octreotide 투여에 따른 단기 부작용으로는 위장관에 작용하는 somatostatin의 생리적 작용에 의한 구역, 복통, 설사, 복부팽만 등이 있으며 장기 투여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octreotide를 투여받은 말단비대증 환자의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25%의 환자에서 서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에서 전도장애가 그리고 9%에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말단비대증이 아닌 정상인 또는 간경화 환자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본 증례는 총담관내 담석으로 폐쇄성 황달이 발생한 78세 남자 환자에서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과 함께 담관내 담석 제거 후 급성 체장염의 예방을 위해 octreotide 0.1mg 피하주사에 의한 서맥과 Morbitz type 1 전도장애 및 저혈압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및 심근효소 측정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octreotide 투여 후 투여전 맥박수가 80회/분에서 35회/분까지 감소하였으며 혈압도 투여전 110/70mmHg에서 95/60mmHg로 감소하였으나 투여 3시간 후에 맥박수는 50회/분으로 혈압은 110/70mmHg로 회복되었다.

본 저자들은 octreotide 피하주사 후 발생한 서맥 및 저혈압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이런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octreotide투여에 신중해야 하겠기에 1예를 보고한다.

— Sun-46 —

Delayed Spontaneous Perforation of RV Apex by Pacemaker Electrode

박혜경, 나현희, 변영섭, 이병권, 김병옥, 이건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내과

인공 심박동기는 심조율이상 환자에서 효율적인 치료방법이다. 단,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율유도에 의한 우심실 천공은 대개 시술당시 조율유도의 조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다. 천공이 발생하여도 간단한 조치로 혈역학적으로 심각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실질적인 발생빈도는 문헌에서 보고된 빈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율유도에 의한 우심실 천공은 유도 위치가 심하게 밖으로 이탈된 경우, 횡경막이 자극되는 경우, 마찰음이 정취되면서 심박동기의 기능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의심할 수 있다. 본 증례는 동 기능 부전 승후군으로 심방과 심실 유도를 모두 이용하는 DDD 형태를 삽입한 후 우심실 천공을 발견하고 수술적으로 치료한 예이다. 시술 후 환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우심실 천공의 증상이나 합병증상이 전혀 없었다. 다만 심실유도의 기능이 점차 감소되어 단기간 주적 관찰 하던 중 약 40 일 째에 심실 유도가 우심실을 천공시키고 횡격막위에 위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흉골 절개 및 수술을 통해 심실조율유도를 제거시켰으며, 경과 중 심낭압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증례와 같이 시술 후 합병증은 대개 초기 집중되어 있으므로 초기의 단기간 주적관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